

월요광장

군대 폭력과 '루시퍼 이펙트'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지금 우리 군대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는 듯합니다. 28사단 포병부대 의무대의 윤일병은 3월 초 전입 후 “어눌하다”,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폭언, 구타를 당한 끝에 사망했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인 이 병장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소한 행동에도 화를 잘 낸다는 등, 그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등 개인 문제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 모두 입대 당시 복 무적합도 검사는 ‘양호’였습니다. 전체 현역 군인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관심 사병’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평범한 우리의 ‘이 병장’은 어떻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악한 군인으로 돌변했을까요? 또 다른 ‘이 병장’들이 별 죄의식 없이 가혹행위에 동참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자살은 어제로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에 자살이 이어집니다. ‘잡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입니다. 죽든지 죽이든지, 우리 청춘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윤일병’과 ‘임병장’을 보면서 짐바르도 교수의 ‘루시퍼 이펙트’가 생각났습니다. 책의 부제는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입니다. 1971년 8월14일,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대학생 자원자 24명을 반으로 나눠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에 장애가 없고, 범죄나 악물 남용 이력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모두 미국과 캐나다 중산층 출신의 좋은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교도관과 수감자는 예비 뽑기로 나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실험인 줄 알면서도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조 시간이면 온갖 가혹행위로 수감자들을 괴롭혔으며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독방에 감금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가합니다. 동료 교도관들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교도관들은 잔인해졌고 수감자는 비굴해졌습니다. 실험에 교도관으로 참여한 사

람은 ‘말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폭력을 합리화했고, 어느덧 반성할 줄 모르는 기계로 변해 버렸습니다. 실험은 원래 2주로 예정되었으나 수감자 역할을 하던 학생들에게 신경 쇠약 증세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6일 만에 중단됩니다. 참가자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탓입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감옥 실험으로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인간이 악마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은 33년 뒤 이라크에서 실제상황으로 재연됩니다.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미군들이 이라크군 포로를 학대하는 사 진에 전 세계가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야만적 행위의 중심 인물인 프레드릭 하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2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침례 교회에 나갔으며,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그가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행위를 저지를 만한 정신병 상상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던 천사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난 뒤 악마로 변하지요. 프레드릭은 왜 악마로 돌변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잡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으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짐바르도 교수는 성한 사과를 썩게 만드는 ‘썩은 상처’에 주목했습니다. ‘감옥’과 ‘군대’라는 환경 자체가 ‘썩은 상처’였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상관과 리더십 부재, 폭력문화를 재생산하는 내부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착함과 같아서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쁜 시스템이나 나쁜 상황 하에서는 누구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장은 ‘졸따구’ 때 부당한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침이 된 뒤 내부반 문화 바르면 좋았을 텐데, 그는 오히려 옛 폭력문화를 이용했습니다.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으라’는 의무대 하사의 묵인 아래 모든 병사들은 폭력의 구조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짐바르도 교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상황과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군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고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심상한 사과를 가지려면 먼저 ‘썩은 상처’를 바꿔야 합니다.

법조칼럼

싱거움에서 ‘실거움’으로



김혜민 변호사

“변호사님, A씨 전화는 도저히 못 받겠어요.” 정작 변호사인 나는 함부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여직원에게는 자주 버럭버럭 하는 의뢰인과 대화를 마치고 진이 빠진 여 직원이 내게 하는 푸념이다. 변호사실 밖 직원 자리에서 이루어진 통화에도 여 직원 수화기를 뚫고 들리는 카랑카랑하고 쉴 새 없는 목소리가 변호사실에 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이니 여직원의 고충이 어중하리라.

수궁을 한다. 하나를 부탁하면 둘을 해내 는 여직원에게 위와 같은 푸념에도 별 걱정은 되지 않는다. 그런 푸념을 한번쯤은 변호사인 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듯하다. 변호사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고충과 불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대부분은 언짢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심증을 헤아리고 위로하다 보면 단순히 법적인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의뢰인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어갈 일을 무척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변호사인 내가 조금만 어색하게 다독이거나 고민을 공유하면 아직 한참 젊은 내 앞에서 연령과 성별 불문하고 평평 울기도 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 라포(Rapport)라고 한다.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소통의 시작인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야말로 그 어느 관계보다 위와 같은 라포 형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관계라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진정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 내 부족한 식견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보다 조금만 더 실거움 변호사’가 되면 되지 않나 싶다. ‘실겁다’는 ‘슬기롭다’의 옛말인 ‘슬겁다’의 전라도 방언이다. “애가 잠 실거워.”라고 하면 잠 보기가 드물게 속 깊은 진국이라는 의미이다. 변호사가 애써 갑자기 의뢰인의 고간 삶을 다 헤아리고 다 공감하겠는가. 그렇 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진정 위로하고 싶 다는 마음으로 의뢰인과 긴밀함을 형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냉정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의뢰 인 변호사에게 마음을 기대면서도 문 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공감은 깊이 하되 사안은 조금은 냉정 하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 ‘실 거움’ 변호사상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도무지 낮아질 줄 모르는 도도 한 변호사의 태도는 의뢰인과의 라포 형 성에 치명적이다. 변호사업도 사람이 하

는 일인지라 완벽을 추구하자고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다짐을 하고 점점을 하지 만 가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게 여 직원의 실수이든, 사무장의 실수이든 무 조건 변호사인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직원의 잘못은 결국 내 잘못이기도 하고, 대외적인 책임은 변호사인 내게 있지 않은가. 서비스의 수혜자가 그 서비스의 불량으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책임자 가 책임을 떠넘기거나 본인은 면피하려고 하면 더욱 더 화가 나는 법이다.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이루어지는 설명은 해 명이 되지만, 사과 없이 이루어지는 설명 은 변명에 불과하고 도리어 사태를 악화 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쓰고 보니 마치 스스로 완벽한 변호사인 것처럼 보여서 민망 함에 이실직고하자면 나 역시 아직도 한참 부족한 변호사다. 실거움 변호사라고 보다는 아직은 싱거움 쪽에 가깝다. 그래도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려고 한다. 과실이 태풍 속에서도 꽃이 나무에 달려 여름을 보낸 뒤 가을 햇살에 차차 익 어가듯, 나 역시 끊임없이 싱거움에서 실 거움으로의 추구를 멈추지 않고 싶다.

社說

해남 일대 풀무치떼 습격, 확산부터 막아야

해남군 산이면 일대 농경지에 수십억 마리로 추정되는 풀무치떼가 난데없이 나타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수확기인데다 잇달 방제에도 그 수가 줄지 않아 사실상 금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한숨을 짓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산이면 덕호 마을에 풀무치떼가 출현해 인근 논과 밭을 뛰어다니며 벼 잎은 물론 한창 영글어가는 낟알까지 닳치는 대로 갹아 먹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풀무치떼는 논과 간척지 등 25ha가 넘는 농경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해남군은 풀무치떼의 이동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친환경 살충제로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개체 수가 워낙 많은데다 번식력이 강하고 친환경 방제 효과가 떨어지 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 일대는 친환경 농지로서 화학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 매뚜기로 알려진 이 곤충은 농 촌진흥청이 30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풀무치(황충)로 밝혀졌다. 풀 무치는 0.5cm에서 큰 것은 4cm에 이르 고, 지금도 부화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옛 문헌에는 황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 집단으로 이동하며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기록돼 있다. 해남군과 농정당국은 풀무치떼의 확산을 차단하되,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야 하는지 단계 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친환경 농법을 포기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화학 살충제를 살포해 이동을 막아야 한다. 해남군은 풀무치떼의 출현 현상을 철저하 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친 환경 살충제로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 으나 개체 수가 워낙 많은데다 번식력 이 강하고 친환경 방제 효과가 떨어지 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 일대는 친환 경 농지로서 화학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 해외공장 광주 생산기지 타격 안 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대규모 해외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에 조성하려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아차가 해 외에서 생산물량을 늘리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62만대 양산체제 구축은 물론 광주공장의 생산능력 증대에도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멕시코시티에 서 연례제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에보 레온주(NL)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건 서’를 열었다. 현지 공장은 500ha(151 만 평)의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기아차는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한다는 방침 이다. 멕시코 공장 설립 배경으로는 글로벌 생존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해서 신규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

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에는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광주와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기아차의 생산량이 늘어 나지 않으면 계획이 불거뿐이 될 가능성 이 높아서다. 멕시코 공장 생산 차종이 진행 중인 62만대 양산체제 구축은 물론 광주공장의 생산능력 증대에도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멕시코시티에 서 연례제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에보 레온주(NL)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인 서’를 열었다. 현지 공장은 500ha(151 만 평)의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기아차는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한다는 방침 이다. 멕시코 공장 설립 배경으로는 글 로벌 생존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해서 신규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

기 고

85년 된 구불구불 기차길을 아시나요?



박석민
코레일전남본부 영업처장

아이를 키우면서 자주 불러주던 동요 중에 ‘기차길 옆 오막살이’가 있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이야기가 잘도 잔다. 책~폭 칩칩폭폭 칩칩폭폭 칩칩폭폭 기차소 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이 동요는 1947년에 발표되었는데 해방 직후 의 어지러운 사회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의 사랑스 런 모습을 잘 표현한 노래다. 얼마 전에 품급역장으로 유명세를 타 고 있는 보성 특급역에서 이 노래를 해랑 기차 여행객들과 품급역장 반주에 맞추어 합창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 아하시는지,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셨다.

어떤 할아버지는 ‘기차길 옆 동네는 애들 이 유달리 많다’는 증명되지 않는 유머를 던져 일행을 웃기기도 하였다. 옛날 증기기관차는 요란한 굉음을 내 며 구불구불한 철길을 운행하느라 몸시 시끄러웠다. 게다가 레일은 20m 마다 이 음매로 연결되었으니 이곳을 지날 때마다 달칵당 소리가 크게 나 새벽별 단잠을 깨우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철길은 300 킬로 속도로 달리기 위해 레일 이음매를 요점했었기에 미끄러지듯이 달리니 이제 는 옛날에 들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됐다. 요즘은 선로를 직선으로 개량하여, 벤 이 기어가듯 ‘S’ 자형의 옛날 구불구불 철 길에 남아있는 곳은 몇 군데뿐이다. 정선 선, 영동선, 경복선 등 일부가 남아 있지 만 그중 가장 타 볼만한 곳이 우리 지역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이다. 이곳은 ‘광려 선’이란 명칭으로 일본 강점기시대에 일 본 민간자본가에 의해 1930년 12월 25일 개통됐다. 호남 중심지 광주와 남해안 중 심 여수를 연결하여 여수항에서는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여객선이 운행됐다. 이 런 광려선은 얼마 후에 총독부가 강제로

인수하여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 사용한 아픈 상처가 있다. 광려선은 광주를 출발하여 화순, 능주, 보성, 벌교, 순천을 거쳐 여수로 연결됐다. 당시에 직선으로 건설되었던 투자비가 많 이 들어 산을 휘감고 강을 따라 구불구불 기차길을 깔았는데 현재까지 개량하지 않 아 선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재미있 는 것은 역 건물 중에 원창역(순천시 별량 면)과 울촌역(여수시 울촌면)은 지은 당시 대로 보존되어 등록문화제가 되었다. 그 외 역들은 한국전쟁 때 파괴되고 이후에 재건됐다. 그중에 볼만한 곳은 남평역, 능주역, 명봉역(보성군 노동면) 등이다. 뽀니뽀니해도 경전선의 별미는 기차를 직접 타보는 재미다. 천천히 가는 곳은 시 속 30km, 그리고 대부분의 구간은 시속 70 km로 달리는 느린 기차가 돼 버렸으나 요 줌처럼 빠른 시대에 가끔은 슬로우(Slow)로 가는 경전선 기차는 과거를 거슬러 가 는 타임머신이 됐다. 특히 봄에는 철길 옆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사이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벼을 볼 수 있고, 초여름엔 들랑 린 청보리밭 물결을 보고 펼쳐 뛰어내리

고 싶고, 가을이 되서는 계단 논마다 출렁 이는 황금 들녘을 보느라면 농군의 수고 와 땀방울에 절로 가슴이 정해 온다. 경전선 기차길은 평야, 강,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그중에 백미라면 단연코 능주역 인근 영벽정(映碧亭)과 양양역 못 미처 송 석정(松石亭) 옆 지식천 강변을 뺄 수 없다. 유명한 동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 자’를 연상케 하는 지식천의 수려한 양벽 과 맑은 강물을 보느라면 기차를 세워서 라도 누가에 쉬어가고픈 충동이 생기는 곳이다. 또한, 기차에서 멋진 산세를 보고 싶다면 특광역 들어가면서 보는 오봉산 칼바위와 등락에서 보성 가는 언덕 기차에서 본 골짜기 풍광도 볼 만하다. 이외에도 경전선 기차길에는 여수, 순 천, 보성의 산물을 광주로 실어 나르던 아 낙네의 애뜻한 사연과 남도의 정취가 물 린 풍기는 풍광이 많이 있다. 요즘같이 빠 른 시대에 가끔은 광주에서 순천까지 2시 간 남짓 느릿하게 운행하는 경전선 기차 를 타고 85년 전 추억으로 되돌아가 보면 마치 수십 년 된 친구를 만난 듯 색다른 추억여행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항검도 관찰사 송언선이 매뚜기로 말미암아 추수할 가량이 없다고 보고 하다.”(선조 30년 음력 7월 25일) “경상도·황해도 여러 고을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조(禮曹)에서 포제(매뚜기·나방 등 농작물의 충해가 심할 때 지내는 제사)를 지낼 것을 청하니, 허가하였다.”(숙종 14년 음력 8월 5일)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조선왕 조 실록DB 검색창에 ‘황충’을 입력하

면 부딪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줄지에 황무지로 돌변했 다.” TV로 방영된 같은 제목의 영화에 서도 매뚜기의 습격장면은 소름돋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했다. 지난 28일 해남군 산이면 들녘에 매뚜기를 닳은 곤충떼가 출현해 수확을 앞둔 벼와 가장 등 작물에 피해를 입히 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현장 조 실록DB 검색창에 ‘황충’을 입력하

매뚜기

면 모두 394건(매뚜 기는 41건)의 기사가 뜬다. 정초5년7월 27 우리나라 대표적 나무인 소나무를 고 사시키는 ‘솔잎혹파리’, 포도 등 과수 에 피해를 끼치는 ‘꽃매미’ 등 외래(外 來)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터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0대 이상이면 누렇게 익은 황금 들 녘에서 매뚜기를 잡아 구입하던 추억 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매뚜기 와 같은 곤충을 익충(益蟲)으로만 볼 수 없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 라 이상(異常)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0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매 케 임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제 크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고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